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파월 의장, 노동시장 리스크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 WSJ: 7월달 연준 의사록 "거의 모든 참석자들 금리 동결 지지"
- WSJ: 9월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 연준 관리들 입장 갈려

[미국 금융]

- Reuters: 미 은행들, 주정부 간섭 제한토록 연방 기준 마련 위해 당국에 로비

[글로벌 무역]

- Bloomberg: 미국행 국제소포 배송 중단 사태...미 소포 면세 취소로
- YahooFinance: 엔비디아 CEO, "새로운 칩 중국 수출 관련 미 행정부와 논의"
- YahooFinance: 중국, 희토류 관련 새로운 지침 발표

[주택]

- YahooFinance: 미 모기지율, 올해 최저 수준 유지

[에너지]

- WSJ: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 보조금 없이도 번영 가능'
- Bloomberg: 유가 상승...파월 연설 및 트럼프의 인도 압박에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대형 소매업체들, 관세 속 번창한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Powell Opens Door to Interest Rate Cut, Citing Labor Markets

파월 의장, 노동시장 리스크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 연준의 파월 의장은 오늘 금요일 잭슨 훌 연준 연례 컨퍼런스에서 9월 금리 인하의 문을 열어두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지만 노동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같은 금리 인하 입장을 시사했다.
- 그는 “우리는 정책 입장 변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과 다른 노동시장 지표들이 안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약적인 정책 입장에서 기본 전망과 변화하는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할 때 우리의 정책 입장 조정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다.
-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오는 9월 16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하 베팅을 높이고 있다. 현재 미 증시는 정오 현재 2%정도 가까이 상승세로 보이고 있다.

- 오늘 금요일 트레이더들은 9월 금리 인하를 91.5%로 점치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Fed Minutes Reveal Broad Support for Holding Rates Steady Last Month

7월달 연준 의사록 “거의 모든 참석자들 금리 동결 지지”

- 다음달 연준이 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연준의 금리 동결에는 참석자 거의 대부분이 지지한 것으로 연준 의사록은 밝혔다.
- 회의 참석자들은 높은 미 관세율의 비용을 수입업자들과 소매업자들, 소비자들이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 이 회의 이후에 경제 지표들에 대해 연준 의원들이 의견이 달랐으며 일부는 9월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 열려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WSJ 기사

WSJ: Splits Emerge at the Fed Before Next Month's Interest-Rate Decision

9월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 연준 관리들 입장 갈려

-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인 Beth Hammack와 보스턴 연준 총재인 Susan Collins은 노동시장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서 다음달 금리 인하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 Hammack은 인플레가 너무 높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 자료로는 금리 인하를 지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반면, Collins는 인플레를 우려하지만 다음달 금리 인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예상 외로 고용 추세 약화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는 또한 높은 관세가 어떻게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결국 소비 지출을 약화하는지를 강조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Reuters: Exclusive: US banks lobby regulators for national standards to curb state influence, sources say

미 은행들, 주정부 간섭 제한토록 연방 기준 마련 위해 당국에 로비

- 미 은행들은 연방 통화 감독기관인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 은행 서비스를 간섭하고 있는 주 정부의 관섭을 제한하도록 연방 기준을 마련토록 요청하고 있다.
- 특히 큰 은행들은 은행들의 업무에 대한 주정부 권한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융자활동, 채권 발생, 투자은행 서비스 제공, 돈세탁 리스크 방지 관련된 통일된 연방

- 정부 규정 마련을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
- 이에 대해 주정부들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Reuters 기사

[글로벌무역]**Bloomberg: Mail Carriers Globally Pause US Deliveries Amid Tariff Confusion****미국행 국제소포 배송 중단 사태...미 소액 소포 면세 취소로**

- 미국으로 향하는 전 세계 국제 소포 서비스가 일시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다음 주부터 중단되는 미국의 소액 소포 면세 규정 (de minimis exemption)이 정확하게 8월 29일부터 발효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련 소포가 매일 4백만개 이상 이 면세 규정의 적용을 받아왔다.
- 그런데 이 같은 중단으로 인해 각각 우체국들의 경우 이 소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으로부터 정확한 소포 관련 지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한편, 1백불 미만 소포의 경우는 여전히 관세가 면제된다.

Bloomberg 기사

YahooFinance: Nvidia's CEO says it's in talks with Trump administration on a new chip for China**엔비디아 CEO, “새로운 칩 중국 수출 관련 미행정부와 논의”**

- 엔비디아의 최고책임자인 Jensen Huang는 오늘 금요일 이 회사가 새로운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 그는 중국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B30A' 반도체 수출 관련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대만의 TSMC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저성능 H20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허용되고 있는데, 추가로 B30A의 중국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YahooFinance 기사

YahooFinance: What to know about China's new regulations on rare earths**중국, 희토류 관련 새로운 지침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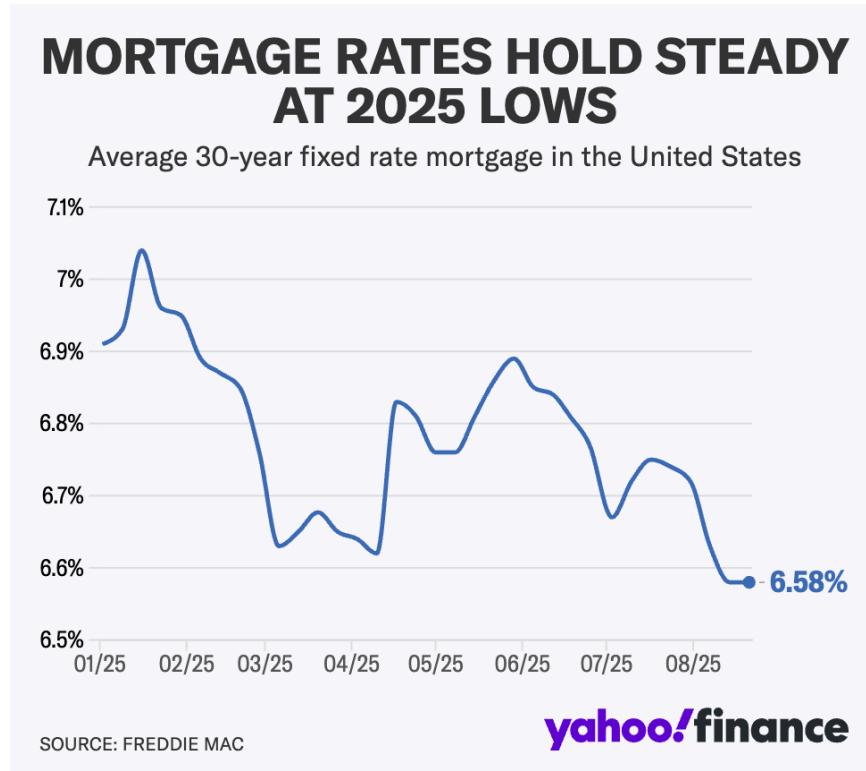
- 중국은 오늘 금요일 전기차와 스마트폰, 전투기 등 많은 첨단 생산품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채굴과 처리 과정을 규정하는 새로운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 제한을 받는 희토류는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정제 처리를 위해 중국으로 오는 희토류에 적용된다.
- 관련 회사들은 관련 광물의 쿼터를 준수해야 한다. 희토류를 취급하기 위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희토류 제품의 양을 정확하게 보고 해야한다.

- 이를 위반한 회사들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희토류 허용 쿼터도 줄어들게 된다.
- 중국의 전세계 희토류의 70%를 채굴하는데, 공급량은 전체 희토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YahooFinance 기사

[주택]**YahooFinance: Mortgage rates hold steady at lowest level of the year
미 모기지율, 올해 최저 수준 유지**

- 이번주 모기지율은 2024년 말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며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 Freddie Mac 자료에 따르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6.58%, 1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5.69%이다.
- 금리가 소폭 하락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신청건수는 정체 상태이다. 금요일까지 재융자 활동은 전주 대비 3% 감소했고, 신규 주택 구매 신청 건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 Pure Funding 모기지 대출 담당자 Gary Pierce는 “많은 주택 구매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금리가 6%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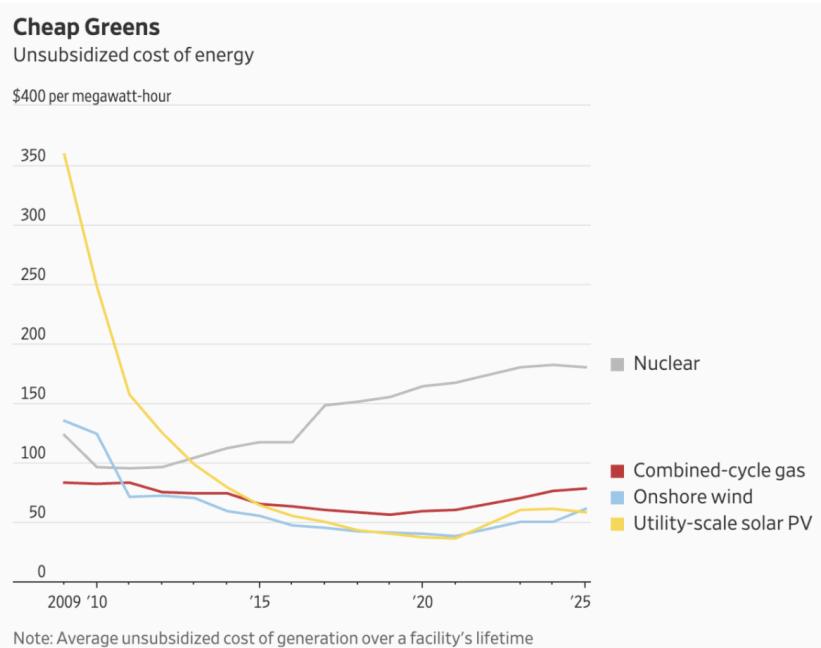


YahooFinance 기사

[에너지]**WSJ: Why Solar and Wind Power Can Thrive Without Subsidies**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 보조금 없이도 번영 가능’

-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 보조금이砍감되면서 산업 전망이 어두웠으나,砍감된 보조금은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오늘날 태양광 발전 비용은 16년 전 대비 84% 저렴하며, 풍력 발전 비용 또한 같은 기간 56% 감소했다.
- 이는 세액 공제가 관대했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보조금砍감으로 인건비 및 허가 비용 등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된다는 것이다.
- 또한, 보조금砍감에 따라 재생에너지 투자 절차가 간소화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 이는 세액 공제에 대한 의존을 줄여 투자자들이 시장에 매력을 느끼게 만들며, 의회의 정책으로 인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해 온 재생 에너지 산업에 안정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 현재는 업체들이 보조금 폐지 시행일 전에 구매자를 찾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으나, AI 데이터 센터 건설로 전력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Oil Edges Higher on Dovish Powell Speech, Trump's India Pressure 유가 상승...파월 연설 및 트럼프의 인도 압박에

- 연준 의장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면서 유가가 소폭 상승했다.
-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4달러 부근으로 상승했고, 파월 의장의 연설로 인해 주식 시장과 원유 등 위험 자산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 백악관 무역 고문 Peter Navarro는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비판하며, 인도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예정대로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 전했다.

-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석유 시장은 향후 분기에 이례적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The Biggest Retailers Are Thriving in the Tariff Economy 대형 소매업체들, 관세 속 번창한다

- 월마트, 아마존, TJ Maxx가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과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 월마트는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관세로 인한 대부분의 비용을 흡수하여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 TJ Maxx는 다른 소매업체들이 관세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주문한 과잉 재고들을 사들이면서 자사의 재고를 확보해 가격 인상을 막고 있다.
- 아마존은 고객에게 더 빠르고 저렴한 상품 배송을 제공하기 위해 배송 네트워크를 개선했는데, 이를 통해 2분기 온라인 매출이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 전 가격 비교 등 시장 조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지출을 줄이고 있다. 소매 업체들은 많은 공급업체들과 협상하는 등 가격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WSJ 기사

[보고서]

"금리인하 아직" 잇단 언급에...비트코인 10만 달러선 향해 후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경제 정책 심포지엄 '잭슨홀 회의'가 21일(현지시간) 개막된 가운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약세를 지속하며 10만 달러선 가까이로 후퇴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4분(서부 오후 3시 4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61% 하락한 11만2천479달러에 거래됐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지난 19일 11만5천 달러선을 내준 데 이어 이날에는 한때 11만1천900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등 10만 달러선을 향해 뒷걸음질 치는 모양새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